

建築이라는 藝術 (IV)

■
Eaasy
Truth in Architecture
by An, Byung-ui

機能主義하면 「바우하우스」 그룹과 「르코르뷔지에」가 선두주자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이 없었더라도 기능주의는 어차피 탄생할 운명이었다. 그 까닭은 건축사조는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회의 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20세기란 바로 산업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科學萬能의 풍조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깊은 시골에 가면 옹기종기 모인 농가가 제멋대로 생겨난 듯한 꼬불꼬불한 좁다란 길을 따라 작은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돌과 흙을 빚은, 돌이 들여다 보이는 얇은 담장 위로 열매를 맺은 감나무가 정다운 듯이 서 있는 그런 풍경을 말이다. 빈터가 있어 거기에 집을 지어 가정을 꾸미고, 또 다음 터에 딴 집을 짓고, 딸을 꾸미고 담장을 쌓고, 그 남은 터가 좁다란 길이 되고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마을이 이루어 졌다. 즉 옛날의 시골은 애초에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자기집 식구에 맞추어 칸사리를 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딸을 잡아 분수에 맞는 집을 꾸며다. 이러한 마을을 찾으면 고향에 온 듯한 정다움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도시는, 예를 들면 서울은 삼각산 밑에 터전을 잡고, 성벽을 쌓아 「서울」의 한계를 정하고 명당자리에 왕궁을 자리잡고 가로망을 구성하고 區域에 따라 商街와 民家를 꾸며다. 즉 서울은 애초에 계획된 마을이었다. 시골처럼 집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서울처럼 마을 자체의 테두리부터 결정하는 이 두가지 방법을 건축디자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다.

前者는 말하자면 조각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덧붙여 가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경우이고, 後者는, 큰 덩어리의 대리석을 깎아서 버릴 것은 버리면서, 목적하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을 건축가의 예를 든다면 전자는 「알발·알토」이고, 후자는 「르 코르뷔지에」의 경우이겠다.

「알토」는 내부의 機能과 空間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組合하여 有機的인 건축으로 이끌어 간다. 내부에서 시작하므로 외부공간은 맨마지막 단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르코르뷔지에」는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서 질서있는 外部造形을 구성해 놓고 그 내부에 機能을 집어 넣는다. 알기쉬운 예를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살펴 본다면 전자는 정부의 下部조직인 한계 단위부터 짜아나가 係가 모여서 課단위의 예산이 그것이 모여서 局, 部단위로 가산되고 전체의 部單位가 모여서 정부의 예산이 결정된다. 모든 계단위의 예산이 충실하므로 결국 정부 전체의 예산이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예산이 터무니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이와 반대로 후자는 정부 전체의 예산에서 각 部별로 쪼개고 다시 課단위로, 係단위로 할당되므로 조금은 불공평하고 합리적이 지 못할 망정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건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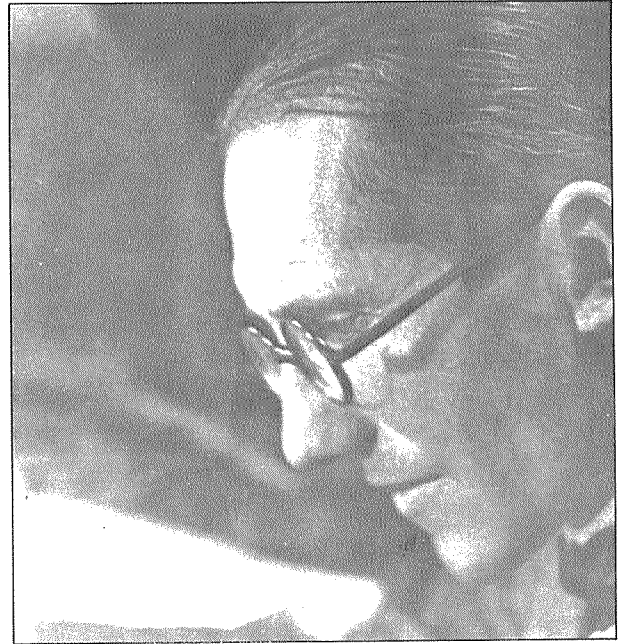
「알토」의 명예를 걸어 그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 가정의 예를 들어 보자. 좋은 가정이란 부모, 아들, 딸 모두가 행복한 집안이다.

安秉義
중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아버지는 온 집안의 권위로 존경받으며 가장이라는 자리를 떠난 그 자신의 행복이 보장되고 어머니는 집안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동시에 그 자신이 만족스러워야 하고, 아들 딸들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자매가 서로 위하고 이리하여 누구도 불평없이 온 집안이 행복해야 한다. 이런 집안은 발전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주택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주택평면을 구성하는 것은 거실, 주방과 식당, 침실, 욕실 등이다. 좋은 주택이란 이러한 구성요소가 저마다 골고루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거실을 크게하는 나머지 화장실이 불편하여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안된다. 욕실은 욕실대로 알맞은 크기와 편리한 기능을 가지며, 주방은 또 주방대로, 거실은 거실대로 각자의 침실은 각자의 취미와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개개의 방이 모여서 한 주택으로 구성될 때 그것은 좋은 평면을 가질 것이다. 물론 대지의 넓이나 방향, 전체적인 모양, 예산 등 참작해야 할 요소는 많다. 다만, 평면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 철학은 각단위의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즉, 국민 각자가 행복한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알발·알토」의 건축디자인의 방법은 매우 민주주의적이다. 「알발·알토」의 평면이나 조형을 보면 기능주의의 해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우선 그는 軸, 특히 直交軸을 싫어하여 쓰지 않는다. 軸이 필요할 때도 變位를 시켜가면서 사용하고 벽면이 같은 線上에 일치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이상한 凸凹들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지어진 건물을 보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간다. 「알토」는 평면의 「그리트 시스템」이나 「모듈」 표준화 등은 건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꼬는 듯하다.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의 라멘구조이지만 内部空間의 분위기에 따라 벽체구조도 같이 쓰고 기둥의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제멋대로 바꾼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분위기이지 「그리트 시스템」의 라멘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機能主義의 거센물결로 인하여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스」 스타일의 영향도 더러 있으나 「라이트」나 「알발·알토」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다. 특히 「알발·알토」는 책도 별로 쓰지 않아 전혀 우리들에게 영향을 못미쳤고 아마 그의 이름을 모르는 건축가도 있을 것 같은 흥미를 끌지 않은 건축가이다. 그러나 「알토」의 건축디자인을 내부공간에서 부터 어프로치해 나가는 哲學이라던가, 「그리트」나 딱딱한 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평면구성의 방법 등은 우리가 좀 더 익히고 배워야 할 건축가가 아닐까. 특히 어떤 轉換期에 놓여



르 코르뷔지에

있는 듯이 보이는 현시점에서 말이다. 매달 서너권씩 발행되는 건축의 월간지를 보면 그동안 지배해 왔던 機能主義의 단조롭고 딱딱한 건축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약 10년 전에 발간되어 우리나라에는 故 尹一柱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된 「피터·브레이크」의 「근대건축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이 기회에 우리들이 기능주의 건축의 어떤 害毒에 물들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機能主義하면 「바우하우스」 그룹과 「르코르뷔지에」가 선두주자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이 없었더라도 기능주의는 어차피 탄생할 운명이었다. 그 까닭은 건축의 사조는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회의 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20세기란 바로 산업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科學萬能의 풍조가 팽배해 지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르코르뷔지에」는 마치 혁명가처럼 나팔을 불고 기능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다. 특히 「주택은 살기 위한 機器이다」라는 「케치프레이즈」는 새로운 창조를 찾는 건축가들에게 만능의 무기처럼 보였다. 언제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때는 그 사상이 지니고 있는 함정을 꿰뚫어보는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성급하여 미처 소화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였다하여, 기능주의가 갖는 함정에 빠져 버렸다. 劃一性, 단조로움, 인간성의 상실, 따위이다. 그러나 정작 우두머리격인 「르코르뷔지에」는 그 함정을 꿰뚫어본 듯 그의 작품은 결코 단조롭지도 않으며, 더러 비인간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강한 조형미로 하여 역사가 길이 남을 독창적인 멋을 풍긴다.

기능주의가 믿는 신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만 만족시키면 되고, 경제적이고, 그러면 건축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탄생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알토」 같으면 방 안의 가구배치와 사람의 動線부터 생각하여 한 방의 크기를 정하고 이러한 각 방들의 연관관계를 생각하면서 평면을 구성해 나갈 터인데. 기능주의자들은 基地의 크기와 주어진 면적을 가늠하면서 전체의 볼륨을 정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즉, 경제적인 「스판」을 마치 그래프용지처럼 기둥을 박고 나머지는 기둥에 따라 기능을 쑤셔 넣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해온 방식이다.

또는 애초에 꾸미고 정하는 건물의 에레베이션이 머리에 박혀 있어 이러한 모양이 되도록 평면을 몰고 간다. 나 또한 눈이 뜰때까지 오랜동안 이렇게 해 왔다. 지금 생각해도 낮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다.

대학을 나온 지 3~4년이 되었을 즈음 나는 金重業 선생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워낙 바쁜 분이라 내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도 미처 계획을 못잡아 날보고 스킴을 잡으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모던하지 않고 평범하게 잡으라 하신다. 나는 졸업작품으로 학교를 다루어 자신이 있었지만 그저 흔히 하는대로 교실과 복도를 연결시킨 기능주의적인 평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지만)을 꾸렸다. 다음날 학장인 독일계 신부가 하시는 말이 「이것은 학생들의 공장이 아닌가」 사죄 百拜하고 다시 金先生께서 잡으신 건물이 지금도 서 있다. 바로 서강대학 본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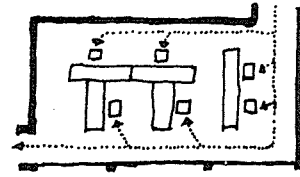
낮이 뜨거워졌던 그때부터 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학생들의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루이·칸」의 空間論에 의하면 건축은 주인이 되는 공간과 이를 위해 봉사하는 말하자면 하인 역할을 담당하는 從空間이 있어 이들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종공간이라는 것은 주공간에 희생되는 뜻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그 주어진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건축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교실이 주가 되며 복도는 종의 자리에 선다.

복도는 어떠한 기능을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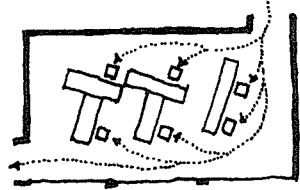
첫째는, 교실에 이르는 통로이지만 더 나아가서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들 끼리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면서 지나는 사람들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는 「알코브」 같은 것이 있으면 더욱 좋다.

미술학교의 경우는 복도는 그림이나 조각을 위한 간단한 전시스페이스도 겸해야 하고 따라서 복도폭도 넓어야 하며 생물학이나 이와 비슷한 학과의 복도 또한 진열장 스페이스를 겸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선으로 된 복도의 최장길이는 어느 정도일까. 아무리 길어도 30미터 이내일 것 같다. 이 이상되면 짜증스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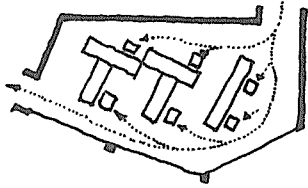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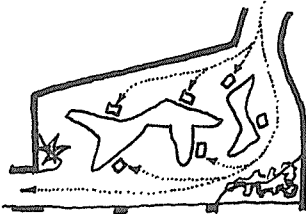
〈그림 2〉

공간으로 도저히 인간을 위한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없다. 호텔의 객실층 복도는 좁고 길다란 공간의 단조로움을 피하려고 객실 입구에 알코브를 만들거나 천정 높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복도의 조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학교건축도 이를 본받으면 좋으련만, 기능주의의 해독을 가장 심하게 입은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흔히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콘크리트의 닭장이지 그게 어디 사람이 살 공간인가. 아파트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투자하는 자본주는 주어진 땅에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필수록 많은 단주세대를 입주시키려고 한다. 그래야 돈이 많이 벌린다. 설계자는 필수록 많은 세대를 집어넣는 작업부터 한다. 법정거리를 떼고, 높이 제한을 계산하고, 이렇게 국민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산수계산을 한 결과 두부 모양의 단위블럭의 치수가 나오고 이것을 몇등분인가 하면 단위세대의 크기가 나오며 나머지는 여기에 기둥을 박고 거실과 침실,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쓸모없는 Size의 다용도실도 쑤셔 넣는다.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입주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값으로도 자기 아파트보다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까닭이 없으니 이러한 행패는 여러해동안 계속돼 왔다. 덕을 보는 것은 물론 투자한 자본주이다. 설계자는 산수와 제도를 하고 (창조적 설계가 아니라) 약간의 돈을 걸머진다. 자본주를 도와준 양심을 팔아버린 값치고는 너무나 싼 값이다. 그러나 설계자가 한 일에 비하면 그것도 많은 값이기도 하다.

왜 세대단위를 구성하는 각 방의 가구와 주방, 욕실 등의 시설배치에서 디자인을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한 세대단위의 만족스러운 평면을 구상하고 이것을 이상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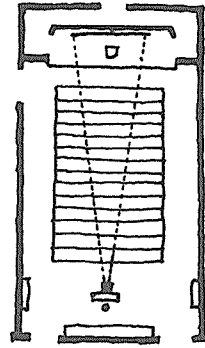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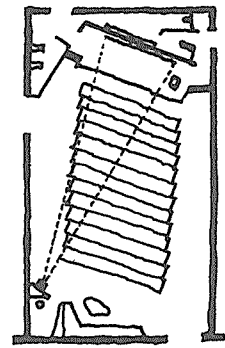


〈그림 4〉

한공간의 가구배치의 예



〈그림 5〉



〈그림 6〉

장방형 강당의 가능

수의 블록으로 조합하고 전아파트 단지로 전개시켜 나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다소 전세대수가 줄게 될지도 모르며 공사비 또한 늘어나겠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아파트단지가 탄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이를 위해 설계자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보람은 있을 것이다. 도시 건축가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그들이 기쁨으로 지낼 수 있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市民會館, 美術館, 오피스빌딩 등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인간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다.

잘못된 기능주의가 가져온 함정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技術萬能의思潮에 빠져 인간성을 저버린 데 있다. 그릇트시스템의 亡靈이 건축의 구조계획에 있어서 라멘조를 神主처럼 모셨다. 그리하여 우선 경제적 스펀을 정하고 기둥이 박힌 그라프용지를 만들어버리고 이에 복종했다. 건축에 있어서의 구조계획이란 즉, 작가가 구상한 공간을 재료역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멘조에서 기둥의 크기나 모양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건축가이지 구조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구조전문가는 건축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할 따름이다. 기능주의의 왕초격인 「르코르뷔지에」도 「사보이」邸에서는 기둥의 배열을 바꾸었고 「산디갈」의 의사당에서는 그가 바라는 위치에 기둥을 불규칙하게 늘어 놓았다. 「알토」의 경우는 이 경향이 심해 더러 기둥을 빼는 것은 예사이고 한 건물에서도 여러종류의 구조계획을 섞어서 쓰고 있다. 중요한 것은 건축공간으로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기둥을 박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았다.

기능주의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세계 여러건축가들의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이제 우리들도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전신하는 경향이다.

어떤 방향으로 전신해야 하는가?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건축가 각자에 달려 있으며 자기가 기능주의의 어떤 점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창조자세의 羅針盤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는 기능주의였는데 그것이 클러먹었으니 앞으로는 「로버트·벤츨리」이다. 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작가를 맹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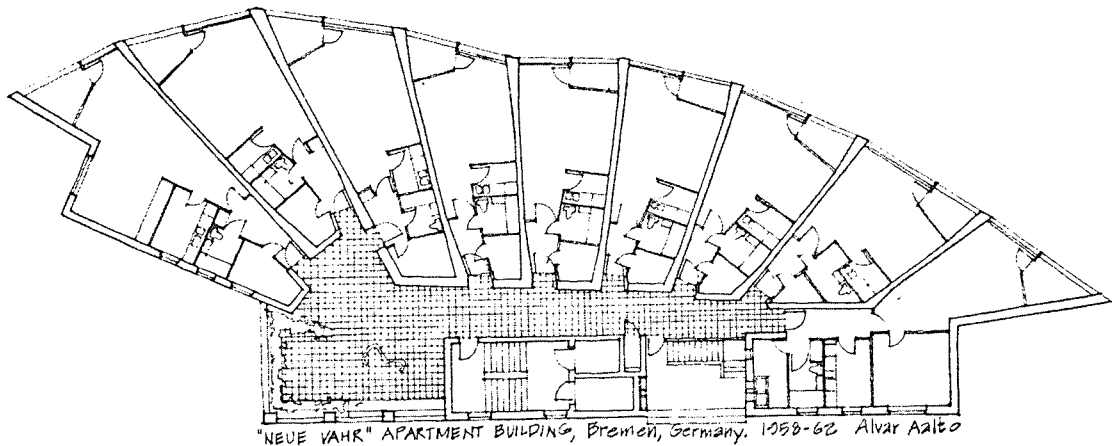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도 있다는 것의 보기로서 「알토」의 스킴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그림 1〉부터(4)는 對角線上에 두 개의 출입구가 있고 한쪽에만 창이 있는 長方形의 방에 여섯개의 책상을 배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다. 〈그림 1〉은 관습적인 경우인데 사람의 동선은 직각이다.

〈그림 2〉는 책상을 경사지게 배치하면서 탁자에 앉았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Elbow Space를 확보하고 사람의 동선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그림 3〉은 벽을 순각으로 하므로서 보다 좋은 분위기의 방이 되며, 〈그림 4〉는 책상 자체의 디자인도 바꾸어 보다 자유스러운 공간이 탄생한다. 이것은 스페이스란 가구배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보기이며 진정 인간적인 스페이스의 디자인은 이러한 방안의 생활양식 — 가구 배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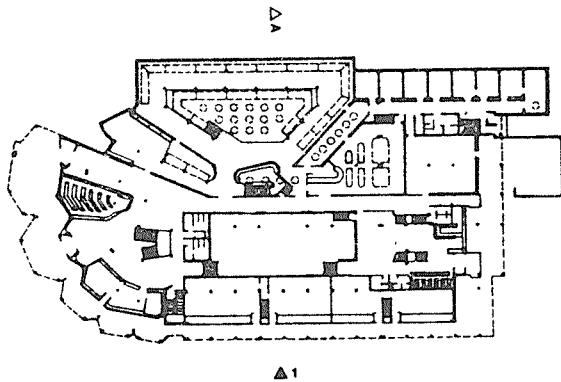
〈그림 5〉와 〈그림 6〉은 100인 수용의 長方形講堂의



"NEUE WAHRE" APARTMENT BUILDING, Bremen, Germany. 1958-62 Alvar Aal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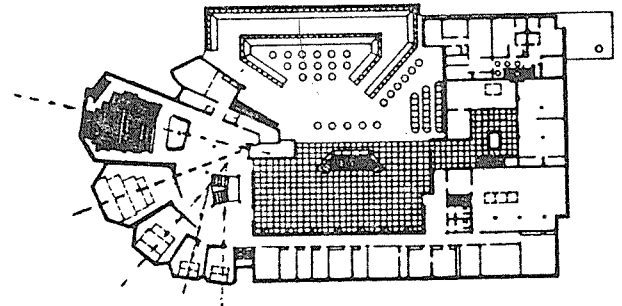
〈그림 7〉

「알발·알토」의 서독브레멘 아파트



△1

LOWER FLOOR PLAN



UPPER FLOOR PLAN

「알토」의 서독 볼프스볼그 문화센터(알발·알토)

〈그림 8〉

경우이다. 〈그림 5〉는 관습적인 예이지만 〈그림 6〉의 경우가 더 인간적이다.

강연자와 映寫技師는 벽의 코너부분에 위치하므로서 강연자는 映寫光線의 눈부심을 느끼지 않고 청중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무대 뒤의 비스듬한 공간은 오히려 〈그림 5〉의 경우보다 쓸모있고 좌석의 비스듬한 배열로 하여 출입구와의 동선이 이상적이다.

〈그림 7〉은 「알발·알토」의 서독 브레멘에 있는 23층의 독신자용 아파트로 햇빛의 움직임에 따라 각 방의 방향을 잡았다. 복도의 폭이 한결같지 않고 각 아파트 유니트도 모두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알토」는 평면의 스케치에만 1년을 소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는 스킴이다. (1962년도 작품)

〈그림 8〉도 역시 「알토」의 63년도 작품으로 자그마한 문화센터이다. 중앙부의 인들을 중심으로 마치 다섯개의 발가락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청년학급, 중심부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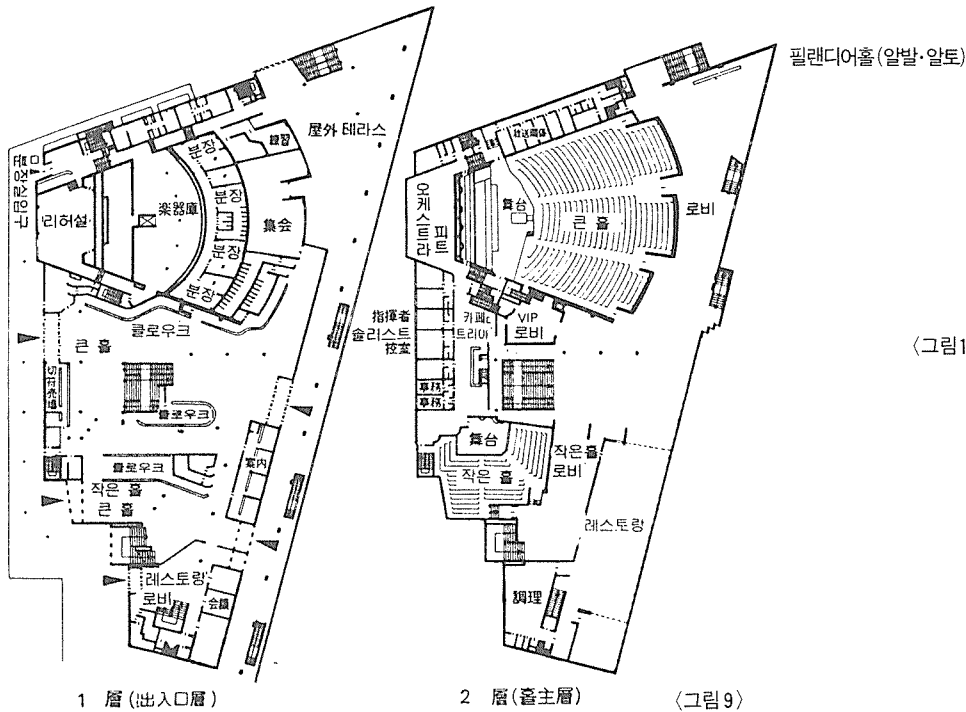
도서실 그리고 밑부분의 7자로 꺾어진 청소년들을 위한 크럽과 관리부분으로 되어 있다.

다섯개의 강의실의 軸을 그려보면 한점에 모이지 않아 일부로 변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華嚴寺의 中庭에 서면 지리산의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개의 전각들이 약간씩 그 축선이 변위되어 이상하리만치 시각적으로 안정된 안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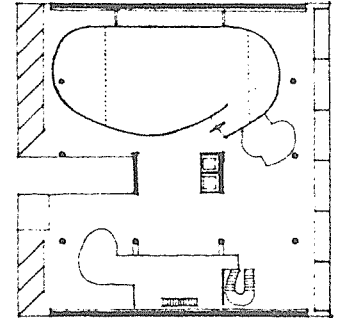
“역시 「프로」들은 다르구나” 하고 안심이 된다.

이 文化센터는 58년의 현상설계당선작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이상한 평면과 조형으로 하여 명함도 못들일 것같은데 이러한 자유스러운 사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서구사회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더우기 「서독」과 「핀란드」는 다른나라인데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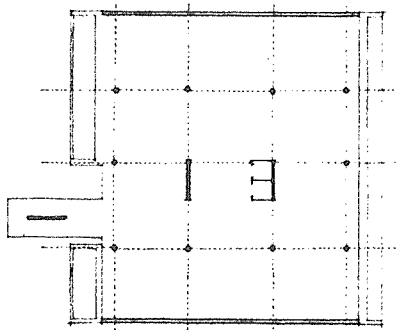
〈그림 9〉는 1971년에 완성된 필랜디어 홀로 「알토」의 최후기 작품으로 원숙기에 들어간 그의 실력이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바닥면적 약 4,000평의 大小 두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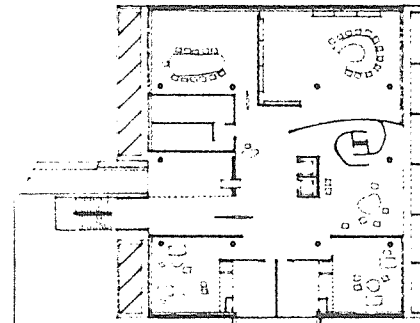
(그림10) 인도의 Mill Owner 회관 (르코르뷔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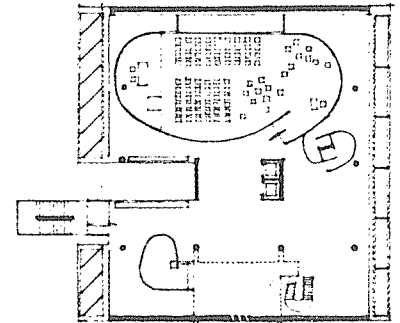
3rd floor plan



Column-grid patter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콘서트홀로 최대수용인원 2,100인. 자세히 보면 矩形에서 벗어난 자유스러운 평면으로 계단의 배치나 모양, 공간구성에 따른 기둥배치, 명확하면서도 원활한 동선계획 등 매우 기능적이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이 있다.

(그림10)은 인도 「아메더반」에 있는 「르코르뷔지에」의 Mill Owner회관으로 기능주의를 제창한 장본인은 기능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층은 피로티와 길게 뻗은 램프, 그리고 엘리베이터 뿐이다. 자세히 보면 「피로티」도 완전한 등간격은 아니다. 2층이나 3층에서는 방안을 한정짓는 간벽은 철저히 기둥과 떨어져 있다. 이것은 그가 제창한 「도미노시스템」 즉, 하중을 받드는 것은 기둥이며, 방안을 꾸미는 間壁은 자유스럽게 평면을 구성한다 라는 신조를 고집스럽게 말해 준다. 또한 그는 방안에 기둥 한 두개가 노출되어 있는 力學的인 感動美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의실, 그 옆에 붙은 화장실 등 모두 자유스러운 곡선이다. 이 건물에서 Public Space의 넓이를 보면 시각적으로도 굉장한 크기인데 기능주의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것이란 결코 피상적으로 면적을 줄이는 것, 적은 공장비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차라리 그것은 이만한 크기의 집이니까 이만한 크기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라는 비례에서 오는 감각이다.

우리들은 이지적으로 건축을 구상하는가, 또는 感性에 의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전자에 속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교육도 지적인 것일뿐 감성이 키워지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建築構想에서 감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서 건축이라는 예술의 작은 글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다음호에 계속)